

崔亨燮

(1971~78년 제2대 과학기술처장관, 현 학술원 회원)

전국민의 과학학운동 제창

지역사회개발과 연계 ... 제주도를 성공모델로



일반국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기술에 대한 존중없이 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최형섭 전 장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나는 과기처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과학기술발전의 기반구축, 전략적 공업 기술개발과 함께 역점을 두고 진행시킨 사업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이다. 일반 국민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기술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발전할 수 없다

는 나의 생각은 이미 64년 박대통령에게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피력한 바 있다.

과기처에 풍토조성課 신설

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술을 천시하는 사회에서는 유능한 인재도 태

어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천재가 나온다 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회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우수한 과학자나 유능한 기술자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배경으로 71년 과기처에 부임한 후 과학기술풍토조성을 실무적으로 담당해 나갈 기구를 만들었다. 그것이 「과학기술풍토조성과」였던 것이다. 이 기구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하다가 나오게 된 것이 '전국민의 과학화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73년 문교부 주체로 전주(全州)에서 열린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제창하게 되면서 거국적인 운동이 되었다.

과학화 운동의 기본목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변화는 가정주부, 농민, 기술자, 사업가, 학자 등 모든 영역의 국민들에게서 일어나야 했다. 과학기술발전은 특정한 과학자나 기술자들의 직접적인 기술과 과학지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학화 운동은 이들 특수 계층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자들만이 한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과학화 운동은 핵심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세분되어 있는 군소단위에서의 균형있는 과학기술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새삼 개발도상국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하루는 문교부 국장이 나를

찾아왔다. “장관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과학화 운동을 제창하고 나니 학교마다 기관마다 과학화 운동에 매달려 문교부에서 하달되는 다른 지시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이를 어찌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열성을 보이니 나로서는 좋은 일이었지만 이것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이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가야 할 것이다.

「새마을기술봉사단」 발족시켜

그런데 전국민의 과학화가 정말로 실현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농어촌에 과학기술이 침투 확산되는 것이었다. 직접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든가, 자신들의 건강에 보탬이 된다든가 하지 않으면 어떤 훌륭한 과학기술지식도 이들에게는 하찮은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당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새마을 운동’의 소득증대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지방이나 바꾸고 위생시설이나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꾸어 놓자는 의도였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김윤기 회장과 상의하였다. 그때 과총 산하에는 1백40여개의 학술단체가 있었고 회원수도 8만명이나 되었다. 이 단체는 현역교수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정년퇴임한 교수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교수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온 「새마을 기술봉사단」이 72년 발족하게 되었으며, 과총에 소속된 각 분야의 교수 1백여명

이 최초의 발기인이 되었다. 처음 구성이 되면서 나는 미리 그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에 대해서 숙지를 시켰다. “여러분들께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 내려가실 때 드는 차비 정도는 보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호텔에서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은 드릴 수 없지만 농가에서 숙박하신다면 그 돈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봉사단이 잘 운영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서울지역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던 봉사단이 74년에는 지방까지 확산된 것이다.

지방대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봉사단(地域奉仕團)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고, 74년 말에는 단원수가 1천5백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수적(數的)으로 증가하고 보니 한 마을에 한 과학자가 결연(結緣)을 맺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3백여 마을과 과학자들 結緣

그 결과 77년에는 3백여개 마을이 과학자와 기술결연을 맺게 되었다. 「새마을기술봉사단」이 전국민의 과학화운동

에 공헌한 바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컸다.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실제로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 농어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과학의 생활화(生活化)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봉사단을 매개로 과학기술은 전국토에 실질적으로 확산되고 침투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후 ‘새마을 운동’이 급격히 쇠퇴되었는데 그렇게 되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몇천명의 과학자들이 조직화되어 과학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의 지방확산, 지역사회개발에서 과학기술이 뭔가 기여를 해야겠다는 목표로 「새마을 기술봉사단」이 생겼는데, 이와 병행하여 연구기관들도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선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나는 평소에도 지역사회개발에 과학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어야겠는가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미국 ‘조오지아 공과대학’ 부설 공업기술시험소가 연구, 기술상담, 정보의 수집·보급은 물론이고 기술에

대한 교육 및 훈련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오지아주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73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시간을 내서 현지를 답사하고 이 사업을 권장하



◇전국 새마을기술지도사례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는 최형섭장관

고 있는 책임자와 여러가지 토의를 한 일이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역 사회개발에 과학기술투입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는 74년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우연한 계기로 참석하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해마다 연말에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 대표들이 모여 대회를 열어왔는데 그해는 대통령이 다른 일이 생겨 전국대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도에서 개별적으로 대회를 열게 하고 각 도와 인연이 있는 장관들이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도록 되었다.

나는 원래 경상남도 출신이므로 그곳에 가야 했는데 장관중에 그 지역 출신이 나 외에도 3명이나 있었다. 내무부장관, 무임소장관, 국방부장관, 과기처장관이 동일한 지역에 걸리다 보니 당연히 내무부장관이 경상남도 차지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엉뚱하게도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이다.

대통령지시로 자금문제 해결

대통령 치사를 대독하고 각종 행사를 참관한 후 제주도 지사, 새마을 지도자들 등과 좌담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평소 생각하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지역사회개발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중인데 그 모델로 가장 유효한 곳이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나 지역면적도 그렇고 여러가지 조건으로 가장 간단하게 실행해 볼 수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나의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제주도 지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흥미를 보였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이 사업을 실

행에 옮길 셈으로 KIST에 제주도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을 만들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일을 시키려고 하니 돈이 없었다. 계약연구기관인 KIST에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었다. 궁리끝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무역협회 박충훈회장에게 찾아갔다. 무역특혜자금으로 인해 무역협회에 돈이 많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주도 개발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지원 좀 해주시지요", "아니, 최장관, 무역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역협회 돈을 쓰겠다는 거요? 그건 불가능하오" 일언지하 거절해버리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연초에 국무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부 장관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다. 식사가 끝나고 여느 때처럼 담배를 피우는데 골초로 이름난 장관들이나 이외에는 한 사람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심코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내게로 다가와서 옆에 앉자마자 옆구리를 찌르면서 "최장관, 담배 한 개피만 주시오" 하기에 별 생각없이 담배를 드렸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대통령은 의사로부터 목이 좋지 않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는 장관들이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나는 오히려 좋은 결과를 맞았다. 옆자리에 앉은 대통령이 제주도 사업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다.

"최장관, 내가 이번에 제주도 순시(巡視)를 갔었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지사를 비롯해 모두들 꿈에 부풀어 있었소. 가서 무슨

말을 한거요?", "저는 다만 제주도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니 자금문제 때문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역협회 박회장에게 요청해 보았지만 무역과 관계없다고 막무가내군요", "무역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박회장 자신이 제주도 출신이라서 그럴거요. 자기 출신지역에 어떻게 선뜻 돈을 내주겠소? 어쨌거나 사정을 알았으니 내가 해결해 주리다."

濟州는 3년만에 '富道'로

다음날 새벽 대통령은 박충훈회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여 그날로 지원을 약속받게 해주었다. 담배 한 개피가 가져다준 행운이랄까. 이렇게 시작된 제주도 개발사업은 골농사 기술지원을 위시해서 제주도 특산물(特産物)개발, 풍력발전(風力發電) 등 여러가지 일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3년을 하고 나니 제주도는 8도에서 제일 부유한 도(道)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독일의 한 교수가 제주도를 돌아보고는 독일정부에 개발도상국 개발모델로 이를 상세히 보고하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고 있던 독일로서는 효과적인 원조방안을 찾던 차에 제주도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을 보고받게 된 것이다. 독일정부에서 곧 KIST로 제안이 들어왔다. 개발도상국의 지역사회개발에 대해서 자기네들과 함께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의 지원자금과 함께.

이렇게 해서 추진된 농어촌지역 기술 개발사업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개발도상국 지역사회개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성공을 거두었다. (ST)